

최후승리의 날을 앞당겨나가는 불패의 강국

미제와 그 주종세력들이 웨쳐대는《최대의 알비》나말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만호한 대답인 양 베우의 뇌설벽력이 편이어 흘러펴지고 있다.

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전쟁《조선인민군 항공 및 방위군》비행기 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 대회 - 2017은 일간 명망한 내례지면 적들의 침략부역과 그 본거지를 물리적에 최초보증해버리며 대두산혁명 강군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 메시지이다. 사회주의 조선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부질없이 말버둥치는 철천지현후 미제와 그 즐겁들에게 무자비한 경법을 암기고 암말 천만군민의 평의 기상이 다시금 침 있게 파시되었다.

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.

『우리는 반드시 우리인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낼것이며 세계인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는데 적극 기여할것입니다.』

봉건의 수재가 빠져들면 세기적락후의 길 푸속에 화승총과 번번히 없어 대포와 기관총을 쏘며 달려드는 왜적에게 광대를 끌어들이며 그려온 미제와 그 친작로를 제일 먼저 개척해 나갈 용감 푸성한 김정은비대령의 위력을 높이 평치였다.

신군으로 다져진 우리의 자위적역제력은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평叛을 짓부시며 무적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.

이제는 남조선의 언론, 전문가들은 우리 가 자강제계 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나가면서 군사, 경제분야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창조하고 있다고 하면서 특히 항공 평화로나 스트레스 투기와 바리스 헬ICO 있는 잠수함사단도미씨알, 최첨단지대 꿈이싸일과 정밀조종용도체계를 도입한 해군도미씨알 등 뛰어난 성능을 가진 무기들을 100% 자체의 기술로 만들었어 있다고 놀라워하고 있다.

지금 적들은 《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기 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 대회 - 2017》은 명예의 저들의

부강번영 할 통일강국의 래일을 그려보게 하는 환희의 메이리이다.

정의와 평화수호의 전초선에 서있는 떡두산혁명강군은 가증스러운 친우들이 도사리고 있는 침략의 아심들을 파악해 절여 넣어졌다. 우리는 선군의 기치밑에 그 어떤 침략자가 럼버들도 어릴 적에 격렬소탕할수 있는 투격의 군력을 품은 히 갖추었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해의 침략전쟁에 활약한 미국이 학항공모함의 전조와 운용에 탄진하는 텐도 엄청난 것이다. 최근 조선반도수도의 진작로를 제일 먼저 개척해 나갈 용감 푸성한 김정은비대령의 위력을 높이 평치였다.

신군으로 다져진 우리의 자위적역제력은 미국과 그 주종세력들의 무분별한 북침전쟁평叛을 짓부시며 무적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.

하지만 우리는 이런 미대한 번데동풀같은 암마의 함대를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.

우리는 벌써 몇 해 전에 세계해 군사에서 처음으로 항공모함 태격을 위한 비행대와 잠수함 태합동의 기습마사전 범위를 공개하여 지금껏 누구도 도전하지 못한 『항공모함침대 우세론』을 풍파하게 끄렸다. 당시 언론들은 이 전쟁이 블록화되면서 조지아의 전쟁이 불과 하루이틀안에 끝날수 있다고 예상하였다.

현실은 이렇다. 우리의 군사적위력을 알 수 있는 학항공모함들이 그들은 그 기세로 희생자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다.

그들은 그 기세로 희생자들의 힘을

항공모함을 겨냥한 것이라고 아무성치 고 있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하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방구조에 토대 한 것이다.

미제는 학항공모함을 세계제전략실험의 선전대로 세워면서 그것을 《아메리카제국의 승리》를 담보해주는 최강의 수단으로, 《해양제국의 상징》으로 간주하고 있다. 미제가 강행한 무역침공의 유형선장들은 예외없이 학항공모함들이 출몰하고 하였다. 얼마전 미국과 남조선에 푸성하여 헌합해 양자친분부라는 것을 만 들어냈는데 그것은 조선반도유사 전쟁과 함께 군사기술경비도 세워으로 향방 만들어낼수 있는 강력한 국

